

대한치의학회 분과학회협의회 개최



대한치의학회(김여갑 회장, 이하 치의학회)는 지난 3월 18일(금) 치과의사회판 4층 대회의실에서 분과학회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에는 김여갑 회장과 각 학회 분과학회장을 비롯하여 최재갑 부회장, 신재원 학술이사, 김철환 수련고시이사 등 치의학회 임원진이 함께 참석하여 주요 인건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0년 대한치의학회 감사보고를 시작으로 제7회 연승치의학상 수상자 선정 및 제4회 치과의사전문일자 격시험 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가칭)대한임상예방치과학회 인준에 관한 건, 세부분과학회 인준 규정에 관한 건, 대한소아치과학회 명칭 개정에 관한 건 등이 차례로 논의되었다.

첫째, (가칭)대한임상예방치과학회 인준에 관한 건에 대해 협의회는 협회 정관에 분과학회 신설과 관련해 '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 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대한구강보건학회'의 반대로 부결되었으며 '대한구강보건학회'에서는 내부 문제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을 피력하였다.

둘째, 오랜 기간에 걸쳐 논의된 대한소아치과학회 명칭 개정의 건은 대한치과교정학회의 반대 의견 등 논란 끝에 표결기로 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결정이 유보됐다.

셋째, 세부분과학회 인준 규정 건에 대해 규정 개정(안)은 신규 학회의 제도권 진입에 대한 내용은 좋으나 학술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학회의 경우는 인준 취소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유사 학회가 난립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학회도 있었다. 정관에 세부분과학회 인준 규정을 포함시키는 작업을 서두르기 위해서라도 이번 협의회에서 결의하고 나중에 세부규칙을 별도로 정하기로 결정하여 세부분과학회 인준 규정(안)에 대한 내용은 찬반 투표결과 가결되어 추후 협회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 정관개정(안)으로써 진행될 예정이다.

김여갑 치의학회 회장은 '임기가 마무리 되기 전 그동안 진행되어온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과학회장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김여갑
대한치의학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치의학회가 된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진짜 눈 깜짝한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제가 정월 초하루였던 것 같은데 2011년도 아차 하는 사이에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간은 빨리 지나고 있는데 서로 마음을 합하여 날아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다면 마음을 합하여 좋은 일이라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년을 뒤돌아봅니다. 우선 하고 싶었던 일, 해야만 했던 일들을 빠트리지 않고 다 했는지 맞추어 봅니다.

학회의 기본은 학술대회와 학회지라고 생각합니다. 치의학회의 학술대회는 잘 아시다시피 개최 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분과학회의 학술대회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되는 분과학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임플란트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시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시된 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동의서와 임플란트 진료지와 함께 임상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임플란트와 함께 실제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진정법에 대하여서도 가이드라인 작업을 같이 하였습니다. 1차 작성 후 대토론회, 즉 그랜드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치과계에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가지고 치의학회가 중심이 되어 토론회의 장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임상가이드라인은 관련 8개 학회가 모여 의견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반대도 많았습니다. 치과외사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도 하지 않고, 돈 되는 일이라면 마구 해대는 단순 임플란트 기술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치과외사도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한 번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자를 치료할 때 적어도 최소한의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해야 합니다. 앞으로 각 분과학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기를 기대합니다. 내 기준에서만 보지 말고 새로 시작하거나, 더 잘해보고 싶어 하는 치과외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와 치과외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학회지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영문학회지로 시작하였습니다. 년 2회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 SCI 등재지가 되어야 합니다. 인접한 의학회지는 도달할 만큼 도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발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라톤이 육상의 꽃이듯 학회지는 학회의 꽃이고,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의학회의 국제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치과외과학회와 먼저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의 활동은 우리와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상대입니다. 몽골치의학회와도 MOU를 맺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도 교류를 갖고 우선 4개국이 모여 치의학 교류를 포함한 학술 및 문화 교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치과외사협회 대의원 총회 결의에 따라 협회장의 위임을 받아 3년 동안 대한치과외사(임플란트)학회, (가칭)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가칭)대한인공골유착학회 등 3개 학회의 단일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중간단계로 대한치과외사(임플란트)학회와 (가칭)대한인공골유착학회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둘만의 학회로 셋이 함께 하지 못하여 아쉬웠지만 학회 자체는 성공적으로 끝냈었다. 앞으로도 두

학회는 계속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동학술대회의 의미는 같이 준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한 번이라도 횡수를 줄여서 회원들이 부담을 주려고하는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임플란트 관련 3개 학회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회장으로 심혈을 기울려 작업해온 것이 있습니다. 학회인준에 관한 것으로 대한의학회를 참고로 하여 분과학회와 세부분과학회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의학회는 전문학회라고 하는데 내과학회가 전문학회라면, 내분비학회가 세부전문학회가 되고, 당뇨병학회가 초세부전문학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합쳐서 149개의 학회가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의 경우 20년 가까이 된 (가칭)대한근관치료학회가 있습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칭)이란 인준을 받기위하여 3~5년 학술활동을 하여 업적을 쌓고 있는 인증 전 단계에 있는 학회라고 생각하는데, 10년, 20년 동안 (가칭)학회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부분과학회로 인증 받기 위하여서도 모 분과학회의 동의도 받아야 하지만 반드시 학회로 인증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세부분과학회를 활성화 시켜서 개업가에 난립하고 있는 연수회들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분과학회협의회에서 세부분과학회를 둔다는 정관개정을 결의하였습니다. 적절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으로 빠지다 보면 끝이 안보입니다. 되는 일 하나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치의학회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유 업무를 찾아와야 하는 것과 재정의 자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먼저 고유 업무 중의 최우선은 치과 전문의 제도의 운영을 치의학회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치과계는, 치과전문제도의 시작에서부터 原罪가 있습니다. 저는 原罪라고 말합니다. 의학회, 한의학회 등 의료계의 다른 학회는 이미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만 운영주체가 잘못되어있는 것입니다. 의료계 타 학회들과 행정당국이 보기에 대한치과외사협회는 이해할 수 없는 이기적인 집단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집단과는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에 信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밑바탕에는不信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전문의에 대해 처음엔 격정도 되었겠지만 이전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옳게 운영하는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나머지 업무는 치의학회가 찾아가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치의학회의 재정은 대한의학회나 일본치과외과학회나 모두 비슷합니다. 하지만 업무의 차이와 회원 분과학회의 회비, 그리고 개인회원의 운영의 차이가 있습니다. 치의학회의 힘을 키우기 위하여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학회는 큰 학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과학회에서 회원 수에 따라 적절한 회비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이 미비한 학회는 정리하기 전에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치의학회나 치과외사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준은 했으나 학회활동을 제대로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학회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해야 합니다.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초분야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힘을 보태주신 이시들과 학술국을 중심으로 한 대한치과외사협회 직원 여러분, 협회장을 비롯한 이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협회 이시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치과외사가 맞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희생적으로 일해서 놀라울 뿐으로 다시 한 번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임플란트 학술단체 공동학술대회 준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연석 회의 개최

- 일 시 : 2011년 1월 11일(화) 19:00
- 장 소 : 반관내지
- 참 석 : 김여갑 회장, 김명진, 김태인, 이영중, 조혜원, 정문환, 김진선, 김양수 위원
- 내 용 : 2010 임플란트 학술단체 공동학술대회 결과 보고

치의학용어표준화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1년 1월 25일(화) 19:00
- 장 소 : 협회 대회의실
- 참 석 : 신제원 학술이사, 김현철, 이정근, 이진한 (代)강윤구, 진보형, 최형준, 팽준영 위원
- 내 용 : 치의학 용어의 KCD 개정판 반영 및 치의학용어집 개정의 건

제6회 대한치의학회 정기이사회 개최

- 일 시 : 2011년 1월 26일(수) 19:00
- 장 소 : 협회 대회의실
- 참 석 : 김여갑 회장, 권호근 부회장 신제원 김철환 김현철, 정승미, 김인걸, 이양진 이사, 이종철 감사
- 내 용 : ① 대한치의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② (가칭)대한임상예방치과학회 인준에 관한 건
③ 학회 인준 규정에 관한 건
④ 분과학회 협의회 개최의 건

대한치의학회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1년 2월 15일(화) 19:00
- 장 소 : 그랜드엠베서더서울 다계
- 참 석 : 이종철 위원장, 김광만, 배광식 위원
- 내 용 : ① 대한치의학회 회장 선출 추진 계획(안) 검토
② 대한치의학회 회장 및 감사 후보자등록 공고(안) 검토

제7회 연송치의학상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1년 2월 24일(목) 19:00
- 장 소 : 서울역 그릴
- 참 석 : 김여갑 회장, 권호근, 최재갑 부회장 신제원, 김철환, 김현철 이사, 이승중 위원
- 내 용 : 제7회 연송치의학상 수상자(대상·금상) 선정의 건

2010년도 대한치의학회 감사 실시

- 일 시 : 2011년 3월 8일(화) 18:00
- 장 소 : 갈릴리
- 참 석 : 이종철 감사
- 내 용 : 2010년도 치의학회 감사

제7회 대한치의학회 정기이사회 개최

- 일 시 : 2011년 3월 18일(금) 18:00
- 장 소 : 협회 중회의실
- 참 석 : 김여갑 회장, 최재갑 부회장 신제원 김철환, 박용덕, 정승미 이사, 이종철 감사
- 내 용 : ① 연송치의학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건
② 연송치의학상 규정 개정의 건
③ (가칭)대한임상예방치과학회 인준에 관한 건
④ 세부분과학회 인준 규정에 관한 건
⑤ 대한소아치과학회 명칭 개정에 관한 건

제2회 분과학회 협의회 개최

- 일 시 : 2011년 3월 18일(금) 19:00
- 장 소 : 협회 대회의실
- 참 석 : 김여갑 회장, 박영국, 백승호, 김경욱, 김신, 이재봉, 김동기, 박병건 이종현, 천재식 김명진, 정훈, 서규원, 나성식 위원, (代)류인철, (代)박준우 위원
- 내 용 : ① (가칭)대한임상예방치과학회 인준에 관한 건
② 세부분과학회 명칭 개정에 관한 건
③ 대한소아치과학회 명칭 개정에 관한 건
④ 기타사항



대한치과교정학회

제26회 평의원회 개최



- 일 시 : 2011년 3월 24일(목)
- 장 소 :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

대한치과보존학회

2011년도 동계 워크샵 개최



- 일 시 : 2011년 2월 11일(금)~12일(토)
- 장 소 : 부산 해운대 센텀 호텔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제4차 이사회 개최

- 일 시 : 2011년 2월 9일(수)
- 장 소 : 서울역 역사내 티원

제43차 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 일 시 : 2011년 3월 19일(토)
- 장 소 :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

학회지 명칭 변경

- Korean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에서 Imaging Science in Dentistry (Imaging Sci Dent)로 명칭 변경 결정

영상치의학 임상실습 3판 발행

- 일 시 : 2011년 3월
- 장 소 :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교수협의회 실습책 3판 발행

대한소아치과학회

제5회 대한소아치과학회 신입전공의 연수회 개최



- 일 시 : 2011년 2월 28일(월)~3월 1일(화)
- 장 소 : 부산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강당

동계워크샵 개최



- 일 시 : 2011년 2월 18일(금)~19일(토)
- 장 소 : 부산 씨클라우드호텔

대한치과보철학회

2011년 신년인사회 개최

- 일 시 : 2011년 1월 11일(화)
- 장 소 : 신라호텔 3층 마로니에룸

대전 충청지부 정기총회 및 학술집담회 개최

- 일 시 : 2011년 3월 4일(금)
- 장 소 : 대전 오페라 웨딩홀

대구지부 정기총회 및 학술집담회 개최

- 일 시 : 2011년 3월 10일(목)
- 장 소 : 대구 그랜드호텔



■ 부산지부 정기총회 및 학술집담회 개최

- 일 시 : 2011년 3월 11일(금)
- 장 소 : (주)디오 사옥

■ 경북지부 학술집담회 개최

- 일 시 : 2011년 3월 24일(목)
- 장 소 : 대구 그랜드호텔

대한치주과학회

■ 제50회 정기총회 및 1차 학술집담회 개최

- 일 시 : 2011년 3월 9일(수)
- 장 소 :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

대한구강보건학회

■ 2011년도 구강관리용품 표준화 포럼 1차 회의 개최

- 일 시 : 2011년 2월 9일(수)
- 장 소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6층 서병인홀

■ 동계 워크샵 및 이사회 개최



- 일 시 : 2011년 2월 11일(금)~12일(토)
- 장 소 : 천안시 휴러클 리조트

■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30주년 기념 사업협의회 출범식

- 일 시 : 2011년 2월 24일(목)
- 장 소 : 서울 세종호텔 은하수 레스토랑

■ 2011년 대한구강보건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48차 정기총회 개최

- 일 시 : 2011년 3월 26일(토)
- 장 소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강당 6층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 신년교례회 개최



- 일 시 : 2011년 1월 14일(금)
- 장 소 : 진진바라

■ 2011년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구강임연구소) 사체해부 연수회 공동 개최

- 일 시 : 2011년 2월 11일(금)~13일(일)
- 장 소 :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2층 강의실, 3층 해부학 실습실

대한치과의사학회

■ 2011년도 대한치과의사학회 정기총회 및 제1차 정기학술집담회 개최

- 일 시 : 2011년 3월 15일(화)
- 장 소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지하 1층 회의실

대한치과기재학회

■ 신입행부 출범

- 일 시 : 2011년 1월 1일(토)
- 내 용 : 회장 김광만 교수

■ 대한치과기재학회 로고 변경



- 일 시 : 2011년 2월 17일(목)
- 내 용 : 대한치과기재학회 로고 변경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 동계 이사회 개최



- 일 시: 2011년 2월 11일(금)
- 장 소: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회의실

■ 춘계학술대회 개최



- 일 시: 2011년 3월 19일(토)
- 장 소: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7층 대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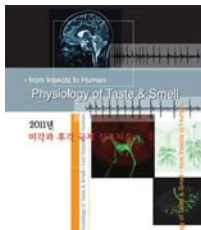
■ 정기 이사회 개최



- 일 시: 2011년 3월 19일(토)
- 장 소: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회의실

대한구강생물학회

■ 2011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 일 시: 2011년 3월 31일(목)
- 장 소: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강당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 2011년 신년하례식 및 2010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개최



- 일 시: 2011년 1월 24일(월)
- 장 소: 함춘원

■ 학회장 초청 만찬



- 일 시: 2011년 3월 12일(토)
- 장 소: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알레그로룸

■ 창립 35주년 기념 2011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 일 시: 2011년 3월 12일(토)~13일(일)
- 장 소: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 2011년 신년하례식 및 2010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개최



- 일 시 : 2011년 1월 24일(월)
- 장 소 : 함춘원

■ 대전충청지부 학술집담회 및 정기총회 개최

- 일 시 : 2011년 3월 28일(월)
- 장 소 : 충남대학교병원 암센터 2층 강당

대한치과마취과학회

■ 대한치과마취과학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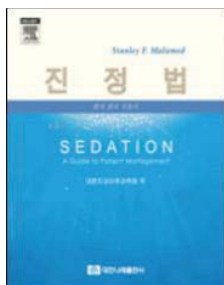
- 일 시 : 2010년 12월 29일(수)
- 내 용 : 대한치과마취과학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 대한치과마취과학회지 10권 2호 발간



- 일 시 : 2010년 12월 31일(금)
- 내 용 : 대한치과마취과학회지 10권 2호 발간

■ 말라메드 진정법 번역 출간



- 일 시 : 2011년 1월 15일(토)
- 내 용 : 말라메드 진정법 번역 출간

■ 제1회 대한치과마취과학회 치과진정 학회인정의 시험 실시

- 일 시 : 2011년 1월 23일(일)
- 장 소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대한치과마취과학회 이사회 및 신년회 모임 개최

- 일 시 : 2011년 1월 25일(화)
- 장 소 : 대학로 티플러스

■ 제31회 심폐소생술 연수회 개최



- 일 시 : 2011년 3월 19일(토)
- 장 소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육동 4층

대한스포츠치의학회

■ 필리핀턱관절학회 정훈 대한스포츠치의학회장 초청 강연 개최



- 일 시 : 2011년 1월 26일(수)~27일(목)
- 장 소 : 필리핀 마닐라

대한장애인치과학회

■ 학술집담회 개최



- 일 시 : 2011년 1월 18일(화) / 2월 15일(화) / 3월 15일(화)
- 장 소 : CDC 어린이 치과병원

